

휴가철 안전사고

자! 떠나자. 동해마도로 삼등 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학부시절 통기타 치며 청량리에서 완행열차에 몸을 싣고 꿈의 여행을 떠나던 기억은 언제나 여름이면 생각나는 싱싱한 추억이다. 그러나 소방 업무에 몸담고 있는 지금은 휴가철 들뜬 마음 한편에 걱정되는 마음이 더 크다.

아마도 직업에서 오는 사명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직업병란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매일매일 접하는 안전사고 소식에서 오는 강박관념 때문이 아닐까. 산악 사고, 교통사고, 익사사고 등 이런사고 저런사고..

가물어 비가오지 않으면 간절하게 천지신명께 기우제를 올리는데, 올 여름휴가철에는 아무 탈없이 진하고 향기로운 추억을 담고 오시길 소방관의 일인으로 기우제를 올리듯 기원한다.

◎ 확실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하다.

산에서는 정확한 지형정보를, 물에서는 안전수칙을, 여행길은 확실한 자동차 관리와 지도 하나쯤은, 건강에는 비상연락 체계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산에서 사고가 났을 때】

- ▶ '99년 8월 등산객 일행이 산을 오르던 중 지형에 익숙지 못한 한사람이 앞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가다 등산로를 잘못 진입하여 계곡에 고립된 것을 아사 직전에 구조.

등반사고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요구조자의 특성을 보면

◎ 실족사고시

- 골절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을 호소한다.
- 골절부위에 형태변화가 있다
- 골절부위를 만져보면 심한 압박이 느껴지고 소음이 들린다.
- 구조하는 방법

- 요구조자의 신체를 안정한 자세로 유지한다.
- 2차적 재해방지를 위해 주변을 정리한다.
- 담요나 옷을 이용해 체온을 유지하고, 산악용 들것을 이용하여 하산.

○ 유의사항

- 고령의 환자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부작용에 유의한다.
- 골절부위는 원위부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 후 응급처치한다.
- 무리한 이동을 하지 않는다.

◎ 계곡 고립사고 시

-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무리한 행동을 한다.
- 야간 기온의 급강하로 체력에 한계가 온다.
- 2차 재해에 노출된다.

○ 구조하는 방법

- 헬기구조가 가장 신속하고 빠르지만 지형이 험곡이나 헬기 접근이 어려운 곳은 직접 도보로 접근하여 구조한다.

◎ 추락사고 시

- 머리와 몸을 심하게 부딪치면서 졸도하여 의식을 잃는다.
- 추락환자는 두부손상 및 척추손상, 골절, 찰과상 등을 동반한다.
- 실족 60m지점 소나무에 몸이 걸려있어 불안정한 상태다.

○ 구조하는 방법

- 날카로운 바위면에 로프손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두줄 로프기술을 활용한다.
- 암벽 등반시 장비의 능력 범위를 고려하여 접근 방법 및 루트를 결정한다.
- 추락에 대비하여 반드시 퀵도로를 이용, 중간 확보물을 설치하면서 등반한다.

○ 유의사항

- 이송 중 실족으로 인한 발목의 겹질림이나 탈골, 골절등에 특히 주의한다.
- 골절 시 사고현장의 주변물건(나무젓가락, 판지, 배

즐거은 피서가 되려면....

개 등)을 이용한다.

- 고정할 때는 다친 곳의 위아래 관절을 포함하여 잘 고정한다.

【물놀이 사고는 이렇다】- 익수와 익사-

◎ 증상의 특성

- 물에 빠진 사람을 사망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익사: 침수 24시간 내에 사망이 일어나는 것
 - 익수: 침수 후 24시간 이후에 사망하거나 사망 전의 상태에 있는 것
- 침수후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3분이상 완전 무 호흡기를 겪게 된다. 이시간 동안 환자의 혈액은 심장·뇌로 모인다.
- 저산소증의 자극은 궁극적으로 탄산과잉의 진정 효과가 우세해져서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게 된다.
- 무의식 때까지 심한 공황 장애를 느끼게 되며 이 단계에서 환자는 거친 호흡과 연하노력이 나타난다.
- 그로 인해 대량의 물이 입이나 후두후부, 위장으로 들어가 심한 후두 경련과 기관 경련을 유발한다.
- 심한 저산소증과 혼수를 가져온다.
- 무의식 상태가 되면 연하반사가 계속되고 위장팽만과 구토, 흡인의 위험이 증가한다.
- 후두경련으로 인해 저산소증과 이산화탄소의 축적이 나타나고, 저혈압·서맥·저산소증이 발생한다.
- 환자는 당황과 공포로 인해 조절력을 상실하게 되고 부력의 감소와 기력의 소모가 보인다.

◎ 응급처치 방법

- 환자의 머리와 목의 손상이 의심되면 긴 척추고정판에 눕히고 물에서 꺼낸다.
- 환자의 호흡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호흡이 없다면 물 위에서부터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땅으로 나온다.
- 기도개방상태와 맥박을 확인한다.
- 구출 뒤에는 기도의 흡인을 위해 환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몸을 옆으로 눕혀 주어야 한다

◎ 유의 사항

- 익수환자의 90% 이상이 후유증 없이 소생하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꼭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시켜야 한다.

【앗! 뜨거워... 도와주세요】

◎ 화상이란?

직접적인 열손상, 방사선 화학물질, 전기 등에 의하여 신체 조직이 손상된상태를 말한다.

1도화상 : 피부가 빨개지면서 통증이 심함

2도화상 : 1도화상과 비슷하며 물집이 생기는 것이 특징

3도화상 : 피부가 하얗고 손상부위를 눌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도화상과 동반되므로 통증이 심함

◎ 화상부위에 붙어있는 옷가지 등은 제거하지 말고 더러운 물건이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간장·기름·뉘장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하며, 화상부위가 적을 경우 깨끗한 수돗물로 냉각시켜 통증을 감소시킨다.

◎ 소독 거즈가 있는 경우 화상 부위를 덮어준다. 그러나 붕대를 이용하여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동차 관리는 필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산과 바다를 찾아 피서를 간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가을이지만 사망자는 피서철인 여름에 27.8%로 가장 많다

◎ 출발 전 자동차 점검은 필수

- 냉각 장치 점검, 와이퍼 점검, 연료 장치 점검, 제동 장치 점검, 동력 전달 장치 점검, 각종 벨트의 상태 점검, 휴대품 점검정도는 해야한다.

이밖에도 낙뢰, 자연재해, 급성 질환, 기타 여러 형태의 응급상황이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119를 찾으시면 신속한 처리가 약속된다.

여유있고 즐거운 여행, 그리고 안전한 피서 보내시길 기원하며...  지명 천(강서구 소방서 홍보실장)